

민족 간 교류의 벽과 스테레오 타입의 재생산

중국 민족계 대학의 티베트족 학생에 초점을 맞추어

XIE YUQING (훗카이도대학)

1. 머리말

1.1 연구 배경

중국에서는 소수민족을 둘러싼 정책 속에서 ‘중화민족 운명공동체’라는 개념이 강조되어왔다. 또 대학진학시험에서는 소수민족 수험생에게 ‘가점’을 주는 등의 우대정책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대학에 진학하는 소수민족 학생도 많아졌다고 할 수 있다.

1.2 선행 연구

1.2.1 소수민족 정책과 그로 인한 문제점

소수민족 정책으로 인해 정치, 경제 등의 측면에서 격차가 생기면서 소수민족 교육에 있어서 소수민족 문화보다 한족 문화가 중심이 되어 소수민족 학생들에게 자기부전감을 초래했다(진, 2019). ‘가점’ 등의 우대정책에 대한 한족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등·마, 2005). 또한 소수민족 교육정책 하에서 소수민족 학생의 학력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문제시되고 있다. 학력 등을 원인으로 티베트족 학생이 대학에서 차별의 대상이 되고, 다른 민족 학생과 선을 그으면서 자민족 의식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Yang, 2017). 그러나 차별과 민족 간의 벽이 형성되기까지의 경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2.2 문화모델과 소셜 리얼리티

Gibson and Ogbu(1991)는 미국의 이민 및 비이민을 대상으로 학력퍼포먼스조사를 실시했다. 이 두 집단은 문화모델¹⁾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차이가 있었다. 또 이민 집단은 교육을 통해 사회 위치 상승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학교 공부를 중시하는 반면, 비이민 집단은 교육을 불신하고 학교 공부를 중시하지 않았다. 티베트족에게 있어서 그들의 문화의 핵심은 ‘티베트 불교’이다(월원, 2008). 게다가 티베트족은 생활 환경과 문화가 한족과 다르므로, 이 두 민족의 소셜 리얼리티²⁾도 다르다. 이 소셜 리얼리티의 차이도 티베트에서의 긴장 정세의 원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Yuand Kwan, 2020).

1.2.3 스테레오 타입과 민족 간 교류

한민족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 사회에서는 소수민족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형성되기 쉽다(Heberer, 2004). 당·고·만(2016)에 따르면 스테레오타입의 존재, 특히 부정적 소극적인 스테레오타입의 존재는, 소수민족은 한족과 적극적으로 교류할 의욕을 억제하고 한족은 이들의 스테레오타입에 의해 상대방을 인식하고 편견, 차별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민족 간 교류 실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기존의 논의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논의로서의 성질이 짙고, 조사에 근거한 실증적인 연구의 직전이라고 해야 할 위치에 머

1) 문화모델이란 생활하는 사회에서 소속된 단체와 다른 단체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다(Gibson, Ogbu, 1991).

2) 소셜 리얼리티란 문화모델을 통해 사회의 모습을 인식하는 것이다(Gibson, Ogbu, 1991).

무르고 있다. 따라서 그것이 많은 케이스에 해당한다고도 단언할 수 없으며 상세한 사례 연구의 축적이 필요하다.

1.3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소수민족에 대한 교육정책을 배경으로, 티베트족 학생과 비티베트족 학생의 교류 및 학생 간의 상호행위에 존재하는 장벽과 스테레오타입의 관계를 고찰해 나가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조사의 실시 방법에는 다음의 2가지를 채용했다. ①티베트족 학생의 일상생활 장면의 참여 관찰과 ②그룹 단위 및 개인 단위의 반구조화 인터뷰로, 대상자를 티베트족 학생과 비티베트족 학생으로 나눈 뒤 실시했다. 비티베트족에 관해서는 일본어를 전공하는 대학 3학년생 24명 및 같은 전공은 1학년생 27명과 교원 1명을 대상으로 한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고, 추가로 3명의 비티베트족 학생을 개인 인터뷰를 실시했다. 티베트족에 관해서는 문화산업관리전공 대학 3학년생 4명 및 수의학전공 대학 3학년생 11명을 대상으로 한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고 8명에게 개인 인터뷰를 실시했다.

3. 고찰

3.1 비티베트족 간의 상호행위

비티베트족 학생 중에는 원래부터 티베트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적었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의 학교 교육에서는 다른 소수민족의 문화, 역사에 대한 과목도 거의 없고, 오로지 대중매체를 통해서만 티베트족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비티베트족 학생들 사이에서는 티베트족 학생에 대한 인식도 편중되어 있고, 당, 고, 만(2016)은 소수민족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민족 스테레오 타입으로 상대를 인식하고 만다고 지적했다.

민족 스테레오 타입의 개념에 관한 논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 조, 정(2011)에 의하면, 민족 스테레오 타입이란, 다양한 면이 있는 민족의 문화, 가치관 및 행위 등을, 하나의 속성, 정의를 총괄해 버리는 것이다.

본 조사에서는 비티베트족 학생들 사이에서 '폭력적', '청결감이 없다', '시끄럽다'와 같은 민족 스테레오 타입이 꼽혔다. '폭력적'에 대해서는 개인 인터뷰에서도 그룹 인터뷰에서도 "선배로부터 티베트족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폭력을 행사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라고 말한 학생이 있었다. 그룹 인터뷰에서는 비티베트족 교원도 "다른 선생님으로부터 예전에 티베트족 학생과 이족 학생은 폭력적인 다툼이 있었다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들의 부정적인 스테레오 타입은 비티베트족 선배 또는 교사들로부터 전달되거나 비티베트족 사이에서 재생산되고 있다. 그러한 스테레오 타입의 존재는 확실히 민족 간 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티베트족 학생은 폭력적이기 때문에 농구 경기에서 티베트족 학생과 함께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한 학생도 있다. 이처럼 재생산되고 있는 스테레오 타입이 민족 간 교류의 장벽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다.

3.2 티베트족 간의 상호행위

조사처의 대학에서는 학부 조정과 숙소 조정이 있었고 원래 독립되어 있던 티베트족학부

와 이족학 부가 해체되어 전공에 따라 다른 학부로 편입되었다. 각 학부에는 전원 티베트족 학생인 티베트족 반, 전원 이족 학생인 이족 반, 그리고 여러 민족 특히 한족이 있는 일반 반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 일반 반의 숙소에서는 같은 민족 학생은 같은 숙소에서 생활해서는 안 된다. 일반 반 수업에 참가했을 때, 티베트족 지역에서 자란 3명의 여학생은 룸메이트가 아니지만 친하게 지냈으며, 항상 수업 시간에 가까운 자리에 앉았고 함께 밥을 먹기도 했다. 즉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족 간 교류의 벽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티베트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룹 인터뷰에서는 비티베트족 학생들로부터 원치 않게 주어진 스테레오 타입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폭력에 대해 한족 학생과 만날 때 옆을 돌아서 간다, 뭔가 우리를 무서워하는 듯한 느낌이다”, “한족 학생들은 만약 우리와 부딪히면 쓰러지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능력 부족’에 대해 “지난번에 일반, 이족, 티베트족 반이 함께 한 활동에서 일반 반 학생들은 이족과 티베트족 반의 계획을 모두 부정했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욕하기도 했다. 한족 학생들은 우리보다 학력 등의 능력이 높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취급된 것이 역시 불쾌하다”라고 호소했다. ‘불청결감’에 대해서는, “한족은 항상 티베트족은 샤워를 하지 않아서 냄새 나는 이미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매일 샤워하고 있어”라고 티베트족 학생이 이야기했다.

이러한 원치 않게 주어진 스테레오 타입은 티베트족 학생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 그 학생들 내부에서 재생산되고 있다. 또, 그러한 부정적인 스테레오 타입의 존재를 의식함으로써, 티베트족 학생의 비티베트족 학생과 교류할 의욕도 꺾이고 있다. 예를 들어 “한족 학생들은 우리와 부딪치면 폭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피하려고 한다”라고 한 티베트족 학생은 말했다. 이렇게 해서 민족 간 교류의 벽은 타파되기 어려워진다.

3.3 비티베트족과 티베트족 간의 상호행위

학교 내부의 일상생활에서는 티베트족과 비티베트족의 상호행위가 적지 않지만 민족 간의 상호행위를 통한 비티베트족 학생의 티베트족 학생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 재생산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끄럽다’에 대해, “원래 티베트족 학생들은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고, 지난번 교실에서 공부할 때 몇몇 티베트족 학생들은 도중에 들어와 큰 소리로 게임 이야기를 했는데 주의를 주어도 들어주지 않았다. 시끄러웠고 실례라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에서 보면, 기존에 갖고 있던 스테레오 타입이 티베트족과의 상호행위 속에서 개선되는커녕 재생산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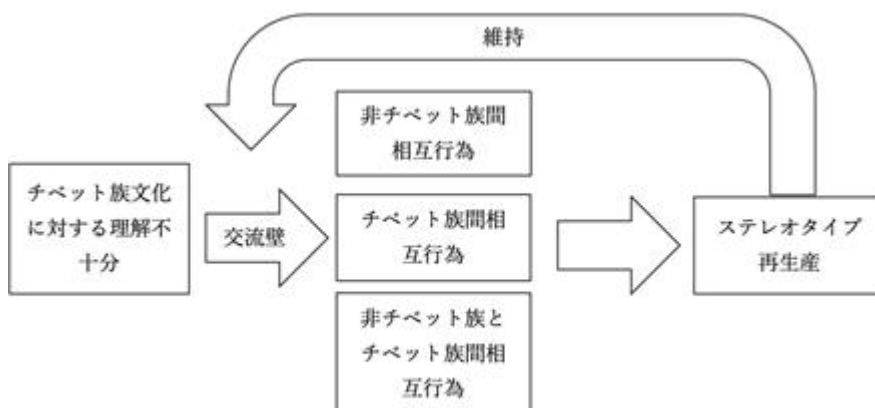


図1 스테레오 타입 재생산과 상호행위의 관계

4. 맺음말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으로 인해 더 많은 티베트족이 주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다민족 사회의 구축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한편 비티베트족 학생에 의한 티베트족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고, 또한 티베트족 학생과 비티베트족 학생 사이에는 정치적, 경제적, 학력적인 격차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간 교류의 벽이 형성되고 있다.

조사지의 대학에서는 학부 개편으로 민족 간 교류의 기회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티베트족 학생과 비티베트족 학생의 교류 및 상호 행위에 있어서는 여전히 벽이 존재한다.

이 벽이, 민족계 대학 내부에서 계속 존재하는 것은 학내의 스테레오 타입의 재생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그림1 참고). 이 스테레오 타입의 재생산은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비티베트족끼리의 상호행위에 의한 스테레오 타입 재생산이다. 비티베트족 학생의 티베트족 학생에 대한 이미지는 주로 선배나 교원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둘째, 티베트족 학생들 간의 상호행위로 인한 스테레오 타입의 재생산이다. 티베트족 학생 스스로도 다른 민족으로부터 받고 있는 이미지를 의식하고 있고, 티베트족 학생들끼리 서로 이러한 이미지의 부적당성과 푸념을 호소하기도 한다. 셋째, 비티베트족 학생과 티베트족 학생의 학교 일상생활에서의 상호행위에 의한 스테레오타입 재생산이다.

위와 같이 본 연구의 조사에서는 스테레오 타입이 계속 존재하는 이유는 비티베트족 학생 간, 티베트족 학생 간 및 두 민족 간의 상호행위로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며, 그것이 민족간 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 결과로 민족교류의 벽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참고문헌

- 月原 敏博, 2008, チベット文化の核とアイデンティティ, ヒマラヤ學誌: Himalayan Study Monographs 9 17-41, 京都大學ヒマラヤ研究會
- 陳烏日汗, 2020, 中國における少数民族教育—その背景と課題—, 名古屋大學大學院教育發達科學研究科 紀要, 教育科學66(2) 73-79
1. 何莹, 趙永樂, 鄭涌, 2011, 民族刻板印象的研究与反思, 《貴州民族研究》 (6) 21-26
- 党宝宝·高承海·万明鋼, 民族刻板印象: 形成途徑与影響因素, 促進民族交往交流交融的社會心理學研究 —以內地民族班學生交往爲例, 西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5) 202-206
- 滕星, 馬效義, 2005, 中國高等教育的少数民族优惠政策与教育平等, 《民族研究》 (5) 10-18
- Gibson, Margaret A., John U. Ogbu, 1991, *Minority Status and Schooling: A Comparative Study of Immigrant and Involuntary Minorities*, Garland Pub
- Heberer, Thomas, 2004, "Some Considerations on China's Minorities in the 21st Century: Conflict or Conciliation", *Senri Ethnological Reports(SER) NO.50 1-31,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Repository*
- Yang, Miaoyan, 2017, *Learning to be Tibetan: The construction of ethnic identity at minzu University of China*, Lexington
- Yu, Fu-Lai Tony, Diana S.Kwan, 2020, *Social Construction of National Reality: Taiwan, Tibet and HongKong*, Lexington

(번역책임자: 김예진)